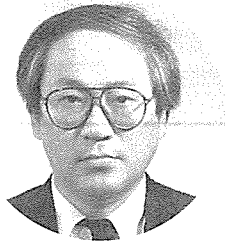


침단의 바탕



黃 琪 源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조경학

괘매는 바늘

바늘은 원래 가느다랗고, 그 바늘끝은 매우 뾰족하다. 그래서 바늘은 그 끝이 날카로운 눈이 되어 사물의 빈틈을 찾아내어 두께가 없는 몸체를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게 하는利器이다.

그러나 바늘이 뾰족하기만 하면 무언가를 그냥 찌르거나 시치는 데에는 쓸모 있지만 무언가를 꿰매는 데에는 전혀 쟁쟁하다. 바늘가는 데 실가듯 바늘의 다른 끝에 귀가 달려서 실을 꿰어 매달 수 있어야만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춘다.

바늘끝은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 잘 모르는 곳, 위험한 곳에 먼저 들어가는 선봉이다. 이리저리 쭈셔보면서 묻혀있는 자원을 찾아내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내는 탐색이다. 바늘귀에 달린 실은 찾아낸 자원을 엮어내고, 만들어낸 길을 다지는 주력이고 지원이다. 그러

므로 바늘 가는 데에는 반드시 실이 따라가야 하고, 실이 가야 하는 데에는 반드시 바늘이 앞장서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날에는 흔해 빠진 것이 바늘이고 실이다. 그것도 골무 낀 섬섬옥수로 한땀한땀 꿰매던 손바늘은 이제 바늘겨레에 모셔지고, 손틀, 발틀, 모터틀이라는 재봉틀이 그 노릇을 대신한다.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지만, 이 바늘이 발명되던 옛날에는 그 시대를 앞서가던 尖端이었다.

기르는 바늘

인류가 낚시바늘로 고기를 낚고, 뾰족한 창으로 짐승을 잡고, 그 짐승 가죽을 벗겨 바늘로 옷을 지어 입던 수렵과 채취의 시대가 지나고, 곡식을 길러 익혀 먹고, 한 곳에 주저앉아 자식 기르며 사

는 농경의 시대가 될 때에 이제 곡식을 키워 먹는 도구로 먼저 등장하는 것이 꼬챙이다. 거친 땅에 구멍을 잔뜩 뚫어놓고 구멍마다 낱알갱이를 하나씩 묻어서 키우는 원시농경에서 쓰인 것이 끝이 뾰족한 꼬챙이다. 이 역시 그 당시는 침단이 아니었겠는가?

文化라는 말, culture라는 말의 원뜻은 땅을 경작하는 것에서 따온 것이니 꼬챙이는 인류의 문화를 개척한 침단이다. 그러나 꼬챙이는 쭈시고 찌르는 일만 할 뿐이니 땅 위에 겨우 점박이 무늬만 그럴 뿐이다. 땅을 갈아엎고, 고랑과 두둑을 만들어 땅 위에 줄 무늬를 그리는 경작은 찌르는 劍에 자르는 刀를 합한 쟁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문화는 이처럼 경작을 통해 수확을 늘이고 나아가서 가치를 높이는 culture일 뿐 아니라, 이처럼 무늬를 그리는 紋化이다. 그러므로 침단의 본

분은 모든 생명의 바탕이 되는 토양을 길들이는 데에 있고, 그 토양의 본분은 앞서 나아가는 첨단인 수고를 받아 주는 데에 있다.

첨단의 바늘과 말미의 실이 바느질을 하자면 천이 있어야 하듯, 첨단의 꼬챙이와 개개의 낱알이 농사를 짓자면 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고운 비단에 이런 무늬, 저런 무늬 수를 놓은 강산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은 이런 수고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가리키는 바늘

문자판을 쉬지 않고 스치며 지나가는 바늘이 있기에 우리는 우주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은 365일이요, 하루는 24시간이요, 1시간은 60분이요, 1분은 60초라고 약속하고, 그것에 삶의 리듬을 맞추면서 살아간다.

이 시간의 흐름을 재어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닌다. 좋은 시계란 보석을 박은 값비싼 시계가 아니라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표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잘 움직이는 정확한 시계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고치거나 영화를 되찾고자 할 때에는 시계바늘을 되돌린다. 현재의 순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빌 때에는 시계바늘을 그대로 세워 놓는다. 그

러나 미래의 기대를 성급하게 성취하려고 할 때에는 시계바늘을 앞당겨 놓는다. 게으름 끝에 앞선 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계바늘도 종종걸음이 된다.

문자판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지만 바늘끝은 끊임없이 움직이니, 생각과 행동이 그것에 뒤쳐지지 않는 것도 첨단이요, 앞서 가는 것은 더욱 첨단이다. 낱자에 맞추는 것(up-to-date)이 옛날의 첨단이라면 시간에, 분에, 초에 맞추는 것(up-to-the-minute)은 오늘의 첨단이다. 이제 시간을 앞서 가는 것(ultra-modern)은 첨단의 첨단이다. 해서 요즘의 시계는 멋으로 차는, 시간을 잊고 사는 삶에 맞는 초패션(ultra-fashion) 장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가 바탕 없이 가꾸어질 수 없듯 우리 역사도 과거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뾰족함의 이로움과 무서움을 아는 것이 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아닐까? 아무리 시계바늘이 제멋대로 돌아도 나침반의 바늘은 여전히 동서남북을 가리키지 않는가?

첨단의 바탕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 만물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산이 높되 가파르면 골은 깊어도 물을 담을 수 없으니 만물의 생육을 무시한다. 산이 뾰족하면 하늘을 찌를 수 있어

도 만물의 접근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높고 가파르고 뾰족한 산은 아무나 오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오르지 못한다. 비행기를 타고 단숨에 오르려고 해도 너무나 뾰족하여 불가능하다. 그저 한걸음 한걸음 꾸준히 오르는 수 밖에 없다. 오르다가 다시 제자리로 굴러떨어지지 않으려면 기슭에서 정상까지 전체를 끊임 없이 가능하면서도 순간순간 판단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예측한 위험은 현명하게 뛰어넘고, 예측 못한 위험은 과감하게 뛰어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어려운 산 꼭대기는 천번 오르려다가 딱 한번 올라도 대근하다. 백개 팀이 오르려다가 딱 한개 팀만 올라도 대견하다. 열명이 오르려다가 딱 한명만 정상에 올라도 대단하다.

그러므로 산이 높으면 그늘 또한 짙듯 성공하지 못한 시도, 보답하지 못한 노력이 그늘에 쌓여 있음을 놓치면 안된다. 산이 높자면 그 바탕이 두툼해야 하듯 이러한 좌절이 쌓이고 썩어서 비로소 씨앗을 싹틔울 수 있음을 잊으면 안된다. 산기슭이 땅위에 누워 있고, 그 위에 산허리가 구름에 감싸여 있기에 비로소 산꼭대기가 하늘과 만날 수 있음을 모르면 안된다.

이것이 바늘의 날카로운 눈으로 땅을 보고, 넓은 귀로 하늘을 듣는 문화다.